

# 관산 양식어장 경매처분 위기

어촌계원이 담보대출 못갚아 수협에 5억 빚져

법원 내달 1차 경매...어민 80여명 생계 타격

장흥군 관산은 장관리 어민들이 생계터전이자 어촌계 공동재산인 양식어장을 팔지에 앓을 위기에 처했다.

24일 장흥군에 따르면 관산은 장관 어촌계 소유 김양식 어장 155㏊를 비롯한 꼬막, 새꼬막 등 총 191㏊에 달하는 양식어장이 법원의 강제경매 결정으로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채권자인 장흥수협의 채무이행 소송에서 대출 차주(借主)인 어촌계원 김모(47)씨의 채무보증에 어촌계가 책임이 있다며 '어촌계 양식어업권 강제경매 결정' 판결을 내렸다.

현재 법원에서 이 어업권에 대한 대여금 청구와 감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빠르면 다음 달 중으로 1차 경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어촌계 양식어업권이 경매처분 위기에 놓이게 된 데는 어촌계원 김모씨가 지난 2000년 6월 축양장 운영자금 2억원을 장흥수협에서 대출하면서 담보조건이 유리한 어촌계를 연대보증으로 세운데서 비롯됐다.

장흥수협은 채무자인 김모씨가 부도로 변제능력이 없자 그 동안의 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해 총 4억7천 80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어촌계 어업권을 압류, 강제경매로 몰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관어촌계는 지난 1980년 이후 관할 지선내 일정 면적에 한해 양식어장 어업권을 취득, 연간 1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만약 경매처분될 경우 김양식 어민들이 가장 큰 타격

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어촌계 주민 80여명은 "당시 김모씨 형이 어촌계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장흥수협 보증 관련서류가 날조 됐다"며 "보증 관련 서류로 장흥수협에 제출된 어촌계원 회의록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10일자로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김모씨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및 허위문서작성'으로 고소와 재심청구를 해놓고 있으나 검찰은 법률상 공소시효(5년)를 이유로 낙태를 표하고 있는 입장이다.

장흥군수협은 "대출과정에서 어촌계장의 직인과 어촌계원 서명·날인이 작성된 회의록이 점부돼 있었기 때문에 서류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양식어장이 '어촌계 총유(總有)재산'이란 점을 감안, 어촌계와 결충해 경매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피해 어민들은 25일 장흥수협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 나주 '1억농 프로젝트' 계속된다

작년 683가구...2012년까지 1천가구 목표

나주시가 억대 부농만들기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나주시는 오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 연매출액 1억원, 경영비를 제외한 농업소득 5천만원 이상의 농가를 1천가구까지 육성하는 '1억농 CEO'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종래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각종 예산을 지원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영농규모와 소득 단계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567가구였던 나주지역 '1억농 CEO'가 지난 해에는 목표치 650가구보다 33가구 늘어난 683가구에 이르렀으며, 계획대로 올해 150가구, 내년 100가구가 확대될 경우 2012년에는 1천여 가구에 이를 계획이다.

지난해의 해우 5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는 품목별로 축산업이 270가구로 가장 많았고, 과수농 181가구, 채소 122가구, 식량 작물 81가구, 화훼 14가구, 특용작물 12



기구 순이었다.

소득규모별로는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430가구로 전체의 63%를 차지했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205가구,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도 37가구나 됐으며,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9가구,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도 2가구나 됐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 화순장학회 163명에 1억3천만원 장학금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이사장 전완준 화순군수)가 올해 고등학생 140명, 대학생 23명 등 총 163명에게 인재육성 장학금 1억3천만원을 지급한다.

(재)화순장학회는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계획을 구체화해 다음달 중 군

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장학금은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나눠 지급되며 대학생은 1인당 200만원, 고등학생은 60만원이다.

지원분야는 성적우수자, 생활곤란자, 특기자 등이다.

(재)화순장학회는 군민과 출향인

사 등을 대상으로 '1인 1구좌 갖기 운동' 등의 지속적인 기금조성 활동을 펼쳐 연말까지 5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화순군 여성자원봉사자회에서 100만원을 기탁한 것을 시작으로 능주면 만인리에서 100만원을 헌착하는 등 크고 작은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화순장학회 163명에 1억3천만원 장학금

## 태양광발전소부지구함

### ■ 위치장소 : 제한없음

### ■ 용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10, 2011년 물량으로 선정확인 된 곳.

## 광주·전남권 중형마트 구함

### ■ 위치 : 주변 3000세대 이상 밀집지역

### ■ 매장면적 : 150-350평

### ■ 임대 및 매수 가능.

### ■ 영업 중인 매장도 인수 가능

(주) 땅 심

TEL : 010-3616-8698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림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연 3%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농촌, 과수원·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시장에서 배송할 때도~  
창고에도~

한전한 운송수단은 원하신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무공해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 신기능의 5,000원 절전 기능  
• 혼선식 빙판리프 시동이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나.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A/S  
• 장기저리 농협용지를 통한 초기 구매부담 최소화  
• 보증기기의 90% 잠기시리얼 시, 1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1%  
• 증정 시 40km 운행(시제품 200kg)

일반 유류 운반차 유류비용으로 한라 전동 운반차 자금 가능

한라 웰스텍(주) TEL 062) 956-8823  
061) 852-8896 H-P 010-9468-3282

TEL 062) 956-8823  
061) 852-8896 H-P 010-9468-3282



## 담양에 둉지 튼 왜가리떼

겨울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담양을 양각리 빛산 느티나무에 둉지를 튼 왜가리떼의 군무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어를 철새인 왜가리는 지구 환경변화로 우리나라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점차 떳새로 바뀌고 있다.

〈담양군 제공〉

## 청렴도 전남 최하위 강진군

## '비리 공무원' 적발 즉시 해임

담양 고서·대전면

하수처리 시험 가동

담양군

고서면과 대전면 하수처리 시설이 오는 7월 완공된다.

24일 군에 따르면 고서·대전면 하수처리장이 85%의 공정률을 보이며 따라 하수처리공정 재점검과 운영 기술 보완을 위해 시운전을 실시한다.

담양군은 총사업비 462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 고서면과 대전면 하수처리시설을 각각 착공했다.

고서면 하수처리장은 고서와 창령대역 등 3개 면에서 발생하는 1일 생활하수 1천200t을, 대전면 하수처리장은 대전면과 인근 하수처리구역내의 생활하수 1천700t을 막는 물로 재생하게 된다.

군은 하수처리시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침전지와 슬러지 농축조 등을 덮개를 써우는 공사와 탈취설비를 구축해 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했다.

또한 악취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하천과 호수 부영양화의 원인인 질소와 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 처리시설을 갖췄다.

/중부취재본부=노정현기자 cjob17@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4월부터 도내 첫 시행

지난해 말 국립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결과 전남도내 최하위로 분류된 강진군이 공무원의 비리·부패척결을 위해 한층 강화된 청렴대책을 내놓았다.

강진군은 "부패고리 단절과 투명한 행정을 통한 깨끗한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 단 한차례의 비리만 적발

돼도 공직에서 바로 뇌물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금을 빼돌리거나 직무와 관련해 험행, 금품, 향응을 받은 공무원

에 대해 한 번의 비리사실만으로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제도이다.

또 공익신고 보상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비리신고주체를 일반인까지 확대하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관련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포상금

액도 최고 1천만원을 신고금액의 20

배(최고 1억원 이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choul@

이와 함께 ▲청렴 지킴이 LED전광판 설치 ▲군수의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교육·전문과정 '이수제' 운영

▲민원인 초청 청렴도 환상을 위한 '다산강좌 개최'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내부

부제-제로(Zero)를 목표로 사전예방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면서 민원인에

대한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패유발요인들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장경록 군 기획정책실장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물론 조직 구성원간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의 날'도 운영해 개혁의 기반을 다지는 공감대가 확대되도록 경주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김철희기자 choul@

립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지원사업에 선정돼 견립하게 됐다.

군은 또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센터를 삼계면 사천리에 10억원을 들여 오는 4월 준공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에 문을 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센터가 운영되면 광주·전남권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의 거점기지로 성장시켜 지역농산업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 光州日報 전남중부최재본부

광산 강진 나주 담양 영암 장성 장흥 화순

본부장 김용기

기원태 국장

최승렬 부장

이상현 차장

정철현 기자

남철희 기자

정운수 기자

김용호 기자

노정현 기자

본원 운영에 들어갔다.

진원면 산정리에 들어선 하마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센터가 운영되면 광주·전남권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의 거점기지로 성장시켜 지역농산업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산자유통센터는 지난 2008년 장성군과 친환경농산물 전문 생산유통법인인 한마음 공동체가 손을 잡고 농

법원은 또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센터를 삼계면 사천리에 10억원을 들여 오는 4월 준공할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에 문을 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센터가 운영되면 광주·전남권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의 거점기지로 성장시켜 지역농산업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